**포스트코로나 초등돌봄 정책방향 온라인 포럼(08.27)**

패널

* 정책관련 공무원, 구별 지역아동센터장, 키움센터장

서울시 운영하는 돌봄종류

* 초등돌봄(학교)/지역아동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온마을돌봄센터 그리고 가정돌봄

#1.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 학습, 급식, 방역

학습, 방역의 경우 기존에 없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새로 추가된 기능들

종사자들의 업무 환경 열악하다 -> 재원과 인원 등의 자원이 필요

급식의 경우, 부모들의 이중적 부담(학교 – 키움센터(급식이용료 받음)) 가중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1(온라인 채팅창)

* 대체인력, 활동보조자 배치 필요 등 인력확충 절실

지역아동센터나 우리동네키움센터나 긴급돌봄으로 인해 아동이 센터에 머무르는 시간이 최대 9시간이 되다보니 2명 또는 3명의 종사자들이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많다

* 긴급돌봄이라고 하는데 학교는 배제된 긴급돌봄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자격기준이 있어서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후 이용을 할 수 있고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키움포털에서 이용신청을 한 후 이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아동들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학교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 외에 필요한 아동은 학교에서도 수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키움,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학원이용 아동파악이 선행된 뒤 키움 또는 지역아동센터의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지원여부를 고민하면 좋겠다
* 긴급돌봄인원은 지금은 소수라 가능 하지만 돌봄공간의 협소 사회적 거리를 아이들과 유지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로인해 이용자와 교사도 코로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위드코로나 상황에 구체적 지침과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다.

#2.

저학년들의 사회관계성 악화 우려, 분노조절, ADHD 등 코로나로 인해 받을 수 있었던 심리치료가 불가해짐. 심각성의 정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3

구청, 학교에서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의 인지도가 약하다(존재를 잘 모르고 있다. 홍보 필요성)

#4

학교의 경우, 공간도 있고 예산도 있고 전문가도 있다. 그러나 지역기관(지역아동, 키움, 온마을돌봄)에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는 것이 아쉽다.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학교 현재 확산성 때문에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5

(학습지원관련)정책공무원 曰 비일상적 상황에서 학교도 현재 제 기능을 못하고 잇는 상황. 돌봄기관 마저 학습지원 안해주면 더이상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없어. 인력, 방역 등 현장의 어려움 알고 있어 현재 ‘희망일자리’ 수요조사 진행중

# 학습 결손 최소화에 대한 방안

1. 학교에서 체계적 학습 지원
2. 마을 돌봄기관에 인력 파견

# 민원

1. 긴급돌봄관련 신청자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수요 계속증가, 새롭게 나오는 긴급돌봄수요)

2. 돌봄의 입소기준이 기관마다 상이하다. 시에서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으면 (통일)

# 정리

1. 학교와 연계한 지원이 필요

학교 남는 교실 활용 필요

맞벌이 가정(저소득X)의 경우 가급적 학교에서 조금 더 담당할 필요성 O

1. 아이들의 정서적 문제(시스템 연계 필요성) -> 공무원 曰 심리정서지원 현재 준비된 시스템이 X 앞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
2. 같은 지역 내 돌봄기관인데 기능과 역할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통합이 필요(구조적문제)

느낀점1 - 서울시(구별)를 모델로 정한 이유

돌봄 관련 다양한 주제를 공론화 하고 포럼의 기회가 多,

구별 지역센터들이 연계가 잘 되어있다.

키움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돌봄서비스들이 있다.

느낀점2 – 학교의 남는 교실 활용

지역간 연계가 이루어지면 학교내의 남는 교실 활용은 필수적이 될 것

하지만 인력이 제한 되어있으니 가장 필요한, 우선적인 곳을 정할 필요가 있다.